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소선지서 강해  
-아모스서-

## 하나님이 보시는 종교인 II

(아모스 4장 6절 - 5장 5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벤엘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벤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막았고, 그 곳에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여보오매 때에는 벤엘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더 샀습니다. 잘못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신앙이라고 모두 같은 신앙이 아니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모두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종교 간에 평화를 이룬다고 하면서 잘못된 신앙과 손을 잡는 소위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팽배해가고 있습니다.

### 1.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벤엘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벤엘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였나니”(5:5).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 다음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길갈은 하나님의 선민 됨을 재확인한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기로 하고 유월절을 맞이해서 출애굽 하던 그때를 감사하는 특별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머무는 동안 하늘로부터 떨어지던 만나가 아닌 가나안의 곡식과 열매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길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고, 약속을 얻게 된 상징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약속의 땅인 길갈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보증하셨던 길갈이었지만 이제는 그 곳에 들어가면 반드시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길갈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 2.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5:5).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까지 북 이스라엘의 배신에 초점을 맞추다가 이번에는 브엘세바를 언급하면서 남 유다에도 죄악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브엘세바가 비록 남쪽에 있지만 그 곳으로 여행을 자주 가서 허황한 종교행사를 벌이곤 했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종교도시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등 위대한 세 족장들과 연관이 있는 장소입니다. 창세기 21장 31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를 방문하여 이방인 아비멜렉과 더불어 맹세를 하였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창 21:22)라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이와 같이 축복의 말을 한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브엘세바는 영광의 도시였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브엘세바를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창 26:24). 브엘세바야말로 축복의 도시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던 곳이었습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섬기라고 하셨는데 형식과 위선과 외모와 외형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점점 무감각해졌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일으킨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또한 야곱이 방문한 곳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창 46:3-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과 복이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각각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브엘세바에 대해서 본문에는 마치 장례식의 조문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었드러졌음이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도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며 일으킬 자 없으리도다”(5:2).

약속과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벤엘이 실패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약속의 땅 길갈과 브엘세바가 망한 것이 너무 허무하여 이들은 었드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허한 종교 생활, 이름만 가진 신앙생활, 하나님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 3.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4:12).

하나님이 아무리 벌을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라에 흉년이 오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졌는데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4:6). 하나님은 또 한계를 내리십니다(4:7-9). 추수기에 비를 내리지 않고 마실 물도 없이 없어졌고 전염병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서 성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자리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말해줍니다.

“너희는 벤엘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회생, 삼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4:4).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섬기라고 하셨는데 형식과 위선과 외모와 외형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점점 무감각해졌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일으킨 것입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 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4:5).

그들은 소리 내어 제사를 지내지만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진노하십니다. 이와 같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5:6),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4:12),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5:4). 이와 같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죽을 것이라는 경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벤엘과 길갈과 브엘세바에는 가지도 말며 하나님을 바로 찾고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4월20일 5시 우리교회당에서

서울 강남노회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하여 주관하여 연합 찬양대가 드리고, 축도는 이종운 목사가 맡아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처럼 4월 20일 새벽 5시에 우리 교회당에서 연합 예배를 드린다. 이 날 설교는 김순권 목사(경천교회 담임, 부총회장)가 찬양은 시온 찬양대가 서 한다.

##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

14일(월)-19(토) 6일간 새벽 5:30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우리교회는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이 되는 1주일간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로 모이는 것으로 선포하고 이종운 목사의 인도아래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다.

시간은 현재 새벽기도회로 모이는 5시 30분으로 변동이 없으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

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또한 성 금요일이 되는 18일(금)은 특별 금식일로 정해 이날 하루 동안 해있는 동안 금식하게 된다. 그리고 주일에는 금식을 하며 준비한 금식헌금도 드리게 된다.

# 2003년 한마음 한가족 축제 준비 시작되다

-열린 교회 · 화목한 가정 · 섬기는 우리-

오늘 5월8일(목) 강남구 일원동 소재 밀알학교에서 열리는 2003년 한마음 한가족 축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완형 장로)는 이번 축제를 준비하며 온 성도가 함께하는 잔치의 자리로 준비하기 위해 표어를 열린 교회, 화목한 가정, 섬기는 우리로 정하고

주제성구는 시편 23:5 말씀 "내 잔이 넘치나이다"로 주제 찬송은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로 정해 우리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부서	부장	운영위원
기획부	김세재	우지원, 최규초, 차도훈, 노창훈, 전정숙, 김광룡, 이동창, 남태순
진행부	최형열	송인권, 김성준, 양준경, 여 숙, 오승민, 김광용, 강낙훈, 성춘모, 박경우, 이순희, 이대원, 김민철
심판부	손병식	이계중, 김금준, 우상태, 홍창배, 장두현, 배호복, 권혁우, 박 준, 이동권
홍보부	김규태	신동기, 김시환, 조단도거, 강석우, 김사라, 장상국, 김진환, 김은희
기록부	김중근	김영주, 김준연, 이영수, 홍일성, 김익석, 이영숙, 윤숙지, 전아미, 김현숙
시상부	오광환	이영철, 최치순, 김신영, 김영식, 조동완, 이종찬, 김용옥, 최영란, 이동규
재정부	신용식	김연관, 남태순, 이영희(민), 이영희(오), 윤태욱, 이찬오, 이형옥, 권혁우, 이은자, 강성은, 한광대, 김정순, 조철기, 주영광, 고석태, 고은화, 김동희, 최정환, 정인주, 이범수, 박성근, 최창수, 김병호, 이남성, 김 훈, 이영조, 최양배, 신동철, 배승우, 하민선, 이강인, 장두원, 양준경, 김우경, 박경준, 김복순, 김혜영, 권재현, 안재희 및 교구 간사 전원
등원부	조정식	김복순, 김혜영, 권재현, 안재희 및 교구 간사 전원
시설관리부	이승우	조철기, 송경의, 윤요섭, 이인근, 이상태, 이광열, 최광성, 이길재, 박동석
봉사부	이관규	최홍렬, 이동만, 최치순, 민대진, 이상오, 오우석, 유근중, 김진필, 김관홍, 유기찬, 최광성, 장 덕, 윤성남, 김현영, 윤은식, 이영희(윤)
의료부	하인신	안인호, 김영주, 박동원, 나미용, 김희옥, 서주영, 김인실
차량안내부	이복규	한길동, 양인수 및 차량 안내원 전원
전령부	임옥균	이태원, 이남성, 최소희, 박민숙, 김은태, 김대용, 노순례
음악부	정동호	서희숙, 이학주, 안용주, 이근대, 박승현, 종교 N.L.C
사진부	정인주	정치은

고3학생들을 위한 결연 기도회를 보고

## 환희의 꽃을 활짝 피우기까지



아름다운 계절 봄이다. 우리 고3학생들과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일 년 동안 기도 후 원하는 믿음의 현장은 참으로 보기 좋은 모습이었다. 봄이 겨우내 모진 고통을 견디어 낸 생명들이 환희의 꽃을 활짝 피우는 계절이라면 우리 고3학생들은 가장 힘든 겨울의 한가운데서 자신과의 인내와 힘겨운 싸움이 남아있는 시기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따라 삶의 봄은 각각 다른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결연 기도회는 순서에 따라 믿음으로 일 년을 잘 지내도록 혹은 진학과 취업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기도 결연자와 관계자 여러분의 간절한 모습에서 엄숙하고도 뜨거운 그 무엇이 치밀어 올랐다. 다니엘이 되어 담대한 학생으로 성장하자는 오정식 목

사님과 선생님들의 교육 목표 아래 우리 학생들은 기도결연자와 더불어 기도와 교제의 시간이 이어졌다.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는 주일 성수 문 제였다. 학생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학원으로 간다는 안타까운 부르짖음이었다. 모든 학생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 중에 짧은 학문적 지식을 구하기 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점을 간과 한다는 게 가슴 아픈 점이라는 것이다. 그런 문제점을 인식 하여 이렇게 기도의 후원자와 결연되어 기도해 주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 영동고등학교 임종표 학생은 자신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시간이 그렇게 힘들것 같지 않다고 한다. 꽃은 저절로 피는 것이 아니다. 바람과 추위를 견뎌낸 꽃만이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기도가 더욱 간절하다. 유명희(편집부)

## 새가족 환영의 시간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3월에 등록한 새가족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디솔 강다영 강래리 강성례 강하람 고재민 곽미숙  
 객민정 객지은 김근에 김경숙 김고은 김광표 김규호  
 김순자 김신원 김영희 김옥란 김은희 김지순 김찬옥  
 김형호 나운선 나정선 노명옥 노윤진 문은숙 민병주  
 박경수 박동희 박민지 박선정 박순정 박애리 박필순  
 배은영 서경미 서경지 서홍철 손서희 송영준 송영화  
 송지연 안준홍 염수미 오미혜 오은숙 오영숙 원용범  
 유 철 유슬기 윤태식 윤다솔 은예솔 이경은 이경희  
 이근희 이덕희 이도형 이동훈 이미연 이미혜 이병철  
 이동훈 이언정 이옥란 이용근 이용필 이윤미 이정훈  
 이지은 이창희 임연선 장윤정 장은숙 전신혜 강연주  
 김기홍 남민복 정복순 정은선 정현우 정현일 진민선  
 진운선 차지운 차영준 천순철 천예은 최경순 최영옥  
 최윤정 최호영 한달진 한승우 한혜경 홍성률 황인영  
 이상 98명

## 가족찬양대회 개최

5월18일(주)에 열려

가정의 달 5월에 가족 찬양대회가 5월18일에 개최된다. 이번가족찬양대회는 참가 범위를 넓혀서 한가정이 참여하시기 힘들시면 한 두가정이 연합하여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특별히 다락방 가족이 탐이 되어 참여 할 수도 있다.

예선전은 교구별로 한 교구에 1, 2팀을 선발하여 5월 16일(금) 예선전을 치른다.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 가족찬양대회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란다. 참가 신청은 교구담당 목사에게 하면 된다.

## 새가족명단에 교회학교 학생도 포함

우리교회 1부 예배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함께 보는 주보에 어린이 새가족 명단이 지난 주부터 실리게 되었다. 어린이도 어른과 똑같은 생명이기에 귀중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들도 환영하기로 하였다.

### 4월중 행사계획

- 4. 6(주): 교육위원회, 새가족환영회
- 4.10(목): 서울 강남노회 이동부 연합회
- 4.13(주): 진도위원회
- 4.15(화): 학습, 세례사문답
- 4.16(수): 학습, 세례식(수요 1, 11부 예배 시)
- 4.14(월)-19(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 4.18(금): 고난주간 금식
- 4.19(토): 육사세례식
- 4.20(주): 부활절-서울강남노회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서울교회당)  
-성찬식(1, 11, 11부)  
-부활절 찬양예배(가브리엘 찬양대)
- 4.27(주): 남산교회 헌신예배, 찬양위원회  
구제헌금



# 23학기 목회자세미나 개강

우리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이 개최하는 목회자 신학세미나 제23학기 과정이 지난 3월31일(월) 오후 2시, 본 교회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개강하였다. 지난 12년의 긴 세월동안 유사한 수많은 신학세미나와 신학교 프로그램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교회 갱신연구원의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단 한번도 결강을 하여본 적도 없이 매 학기마다 강의장을 가득 메우는 교역자들의 교회갱신과 부흥의 뜨거운 열기 속에 연인원 10,000명을 상회하는 수강생과 10years round members를 배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우리교회 이종운 목사는 제1학기부터 23학기에 이르기 까지 제1교시 강의를 책임지며 성경 강해를 계속 해오고 있어 참석하고 있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경연구의 새 지평을 열며 목회의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어 전국의 교역자들의 중요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23학기 세미나도 전국의 교역자들의 깊은 관심과 열기 가운데 개강되었다. 2층 로비에 마련된 등록창구와 강의실로 사용되는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은 전국의 교역자들로 가득 메워졌다. 1교시 강의는 이종운 목사의 시편 강해가 지난 학기에 이어 계속되었으며 2교시는 이수영 목사(새문안 교회)의 목회자의 비전과 교회성장이라는 주

제의 강의가 이어졌다. 더욱 알차게 짜여진 금번 학기 커리큘럼으로 본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모든 교역자들은 더욱 큰 힘을 얻으리라 사료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본 세미나를 위해 월요일 아침 일찍부터 교회로 나와 봉사의 손길을 아끼지 않은 성도들의 수고였다. 주방에서 식사준비로 등록 접수로 안내로 서적 및 테이프 판매와 차량 주차, 안내에 이르기까지 맡은 부서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손길로 금번 학기 세미나 역시 훌륭하게 준비됐다.

강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참석자들의 밝은 얼굴과 발걸음을 통해 우리를 통해 역사 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돌린다. 유태서(편집부)



편지왔어요

## 저는 사랑에 빛진 자입니다

이종운 목사님께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군목수련회에 참석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서울교회와 군선교연합회의 헌신, 마지막 받은 5만 원... 성도님들의 피와 눈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전히 사랑에 빛진 자로 서 있습니다. 그토록 섬김을 받을 만큼, 잘한 게 없는데도 말입니다.

지난 번 군목수련회가 저에게는 얼마나 좋았는지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저는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유학가기 전에 그저 공부나 하려고 군대에 가려고 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한다." 라는 신념을 잠시 망각한 것 같습니다.

제 자신에게 근신을 명령했습니다. 이종운 목사님이 말씀하신 "복음에 대한 절대 신념", 정녕 그렇습니다.

시대는 혼란하고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이 때에 정치적 민주화가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발전과 성장이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은 예수를 믿는 것뿐입니다. 그가르침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이 민족을 나아가게 하는 일이 부족한 종의 생명을 걸고 실천하겠습니다.

이 땅은 주께서 친히 피로 사신 땅입니다. 이 나라는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으로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반미 감정의 확산", "주한 미군 재배치 논의", "정부의 불안", "국가 위함도의 증가", "북 핵" "북한 인권의 망각", "이라크 전쟁", "기독교를 반지성, 신비주의, 성장주의, 물량주의로 매도하는 지성인들", "사회에 팽배한 반기독교 정서들"이 민족의 앞날이 걱정입니다.

과거 좌파정부가 들어섰던 남미의 길을 걸을까 걱정입니다. 답답한 이 시대, 안보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는 없는데, 고위층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올 해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데,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이 시대 민족을 살리는 길은 "예수를 전하는 것뿐", 그가르침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편지를 마치려 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목사님께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거듭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복음을 전하는 백발의 노장"에게 "사랑의 빛진 자"가 보냅니다.

2003년 3월22일

전병희 군목목사후보생 드림

교우기업탐방

## 모든 좋은 것 되시는 하나님

정치은 집사 · 김영현 집사가정

서울 신사동에 있는 정치은 집사 사무실 벽에는 갖가지 성경말씀들로 가득 차 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에서부터 "사랑은 언제나 오래참고..."로 시작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여기에도 정 집사가 스스로 써서 붙인 갖가지 말씀 종이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다. 바로 이 말씀들이 사업장과 가정을 이끌어 가는 힘이라고 정 집사는 말한다.



정치은 집사의 주요 사업은 광고디자인에 쓰는 사진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를 CD Rom에 담아,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하는 일이다. 이와 함께 최근엔 모바일쪽에도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쉽게 말해 휴대폰에 뜨는 배경화면 등을 유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99년에 신사동에 조그만 사무실을 마련한 뒤로 하나님께서 해마다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지금은 이 사업들이 모두 번창하고 안정을 찾으면서 정 집사는 요즘 새로운 분야로 또 다른 개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사람들은 저보고 왜 그렇게 밤낮으로 뛰냐고 묻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살아있는 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와 때를 주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정 집사는 그러면서 항상 전도서 9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거울로 삼고 있다고 한다.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일할지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라. ...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니...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정 집사가 지금의 사업장을 갖기까지는 비록 짧지만 유난히 많은 어려움과 고비를 넘겨야 했다. 대구가 고향인 정 집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뒤 불과 23살

에 일본어와 멀티미디어를 공부하기 위해 혼자 몸으로 일본에 건너갔다. 그곳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다 학비를 벌어가며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3년 남짓한 유학생활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정 집사는 교회 공동체와 신앙생활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 서울교회로 오게 된 것은 귀국한 직후인 지난 97년, 평소 알고 지내던 분의 인도를 통해서였다. 깊이 있고 은혜 넘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정 집사는 서울교회에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된다. 그러던 지난 98년, 정 집사는 IMF한파로 인해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회사 문을 닫고 빈털털이가 되기도 했다. 이때부터 정 집사는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에 참석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고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주셨고 지금의 일터를 허락하셨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청년부 회장으로 섬길 당시 부회장으로 섬기던 김영현 집사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뤘고 슬하에 아들 건(3살)과 딸 서현(1살)이를 두게 됐다. 광주가 고향인 김영현 집사는 지난 96년 이모님인 권순단 권사의 인도로 4자매와 함께 서울교회로 온 뒤 정치은 집사와 결혼하기까지 중등부 교사와 청년부를 섬겨왔다. 지금은 둘 다 신혼가정부에 있으면서 한편으로 교회 멀티미디어단도 함께 섬기고 있다.

정 집사 가정은 지금의 축복에만 안주하지 않고 장차 2,30년을 내다보며 기도하고 있는 기도제목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의 건강과 물질을 잘 관리해서 앞으로 일본에 선교 센터를 짓고 일본 선교에 비전이 있는 한국의 신학생과 목회자들을 파송 받아 이들을 물질로 기도로 지원하는 일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값있게 사용하고자 힘쓰는 이들의 기도는 지금도 슬하의 아들과 딸처럼 무럭무럭 아름답게 자라고 있다.

김민철(편집부)

순례자 특집(이단 바로알자②)

# 통일교는 이단이다

오정식 목사(3, 4교구담임)

지난 달 10일 새로운 정당이 창당됐다. 바로 '천주평화 통일가정당' (약칭 가정당)이다. 천주교에서 만든 당인가? 아니다. 통일교가 만든 당이다. 이번 겨울에 용평리조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스키를 탔을 것이다. 그런데 그 용평리조트를 통일교 계열회사인 세계일보가 인수했다. 스포츠 뉴스를 보면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축구단이 있다. 천마일 화축구단이다. 역시 통일교가 주인이다. 그리고 오는 7월에는 유럽의 명문프로구단을 불러 '월드피스스킵'이라는 축구대회를 연다고 한다. 이와 같이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통일교는 어떤 단체인가?

### 1. 문선명

통일교의 창시자 겸 교주는 1920년 1월 6일 한국에서 태어난 문선명이다. 16세의 젊은 나이에 문선명은 산기도 중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한다. 문선명은 주장하기를,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나타나 당신께서 이루 시지 못한 과업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셨다고 한다.

### 2. 원리강론

통일교에서는 성경보다도 문선명의 문서들과 가르침이 더욱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신약에 나타난 예수의 말씀들과 성령은 빛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의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소위 문선명이 받았다고 하는 계시를 기록한 주요 책자는

'원리 강론'이다. 통일교 추종자들에게 있어서 「원리 강론」은, 심지어 성경의 권위보다도 앞서는 가장 권위 있는 문서이다. 이들은 원리 강론을 완성된 언약으로 믿고 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계시된 적이 없는 이 시대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문선명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성경과 완전히 다르다.

### 3. 통일교의 주장

문선명의 주요 사상은 이원론이다. 그는 모든 존재가 이원론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도 육체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 즉 이원론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도 육체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 모두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적인 구원은 이루었지만 육체적인 구원을 이루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실패한 육체적인 구원을 다름 아닌 문선명이 이룬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문선명의 추종자들은 그를 '메시아', '재림주'로 여기고 '아버지'라고 부른다.

통일교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지만, 실상은 그 주장들이 모두 우스운 얘기들뿐이다. '원리 강론'의 가르침들은 핵심적인 모든 교리에 있어서 성경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문선명 그는 마땅히 거짓 선지자로 정죄 받아야만 한다.

## 부활절까지 묵상② 이제 오모 (Ecce Homo)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수께서 못 박히시던 날 그때 그 무리들은 양심을 찌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책을 받았으나 회개하지 못하고 도리어 시기하여 자칭 하나님이라 한 자 즉 신성모독의 죄를 걸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하고 마침내 그들과 원수인 로마 총독 앞으로 끌고 가 스스로 로마의 속민임을 자처하면서까지 미친 듯이 예수를 죽이려하였다.

또한 빌라도는 예수를 심문하고 그에게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여 죄수 바리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 채찍질과 짐 싣고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갖은 모욕 끝에 마침내 자색 옷을 입혀 유대인 군중 앞에 세우고 이렇게 외친다. 예체 호모! (Ecce Homo)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고함을 질렀다.

지금 빌라도의 이 말은 바로 나에게 외치는 소리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때 그 무리들과 같지 아니한가? 배반한 가롯 유대의 모습은 아닌가? 비겁한 빌라도의 모습은 아닌가?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2주 후면 맞을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짐 싣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되신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기도하는 중에 만나자.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 보자. 십자가의 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보자.

### 등정

- 김정인 선교사(라오스)가 지난 4일 소천하였다. 7일 포항에서 천국환송예배를 드린다. 지난 ALCOE대회때 라오스 대표단을 인솔했고 인도차이나 선교대회시 대회장으로 수고한 선교사다.
- 개업: 신동천 박용혜 집사 가정(4교구) 롯데리아 신갈점 031-281-9696
- 금주의 식사: 탁경준 집사 · 전정숙권사(자녀결혼 감사)
- 목회자세미나 식사제공: 신용식 집사, 김진영 집사 가정
- 목회자세미나 간식제공: 장두현 집사, 이미송 집사 가정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Y 106.9M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닫혔던 문이 열리다

### 전도학교 4기 수료식 4월13일(주) 찬양예배시간에 가져

70인 전도대원 24명이 지난 1월12일부터 오늘 4월6일까지 12주 훈련과정을 마치고 다음 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수료식을 가지게 되었다.

전도학교 4기생들은 계속 교육중임에도 불구하고 전도현장에 투입되어 은마 아파트 4,000 세대를 목표로 2인 1조로 짝을 지어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하여 40명의 결신자를 얻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서툴고 힘들었으나 계속되는 전도활동을 통하여 결실을 얻게 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것에 감사를 드렸다.

현재 교육중인 제5기 전도학교에는 현재 17명이 등록신청을 하여 계속 전도의 열기를 이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며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인근교구에 거주하는 성도들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전도학교 4기 수료자의 명단과 5기 등록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4기 수료자

김정애 안미경 박순복 황정아 박이선 박재숙 최명순 이미송 윤용미 전하미 김혜란 김동진 김정순 박춘자

천인숙 윤소희 최향봉 함연호 이순희 임인선 김은태 조동원 주동재 이종창 이상 24명

### 5기 등록자

문옥일 김희옥 조희경 임명숙 김영숙 박종숙 김정자 손성실 전소향 남옥진 김현숙 임인선 심명숙 최낙준 조성식 신봉식 정명숙 이상 17명



미안합니다

· 오른손 1지와 5지로 원을 만들어 이마에 댔다가 앞으로 내밀면서 편다.  
(자문: 임규현 에바다부 담당 목사)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개인, 가정, 교회되도록
2. 23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와 열린 프로그램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미곡·이라크 전쟁 속히 끝나고이라크에도 복음이 증거 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